

10월 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경기회복세 확인할 어닝시즌 돌입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5~9일)에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가 본격 시작됨. 지난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높였음. 특히 9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더블딥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경제지표의 부진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에서 벗어나는 험난한 과정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됨.
경제지표 발표는 한산	경제지표 발표는 상대적으로 한산. 다만 공급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서비스업) 지수와 신규 실업수당청구는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전망. 5일에 발표되는 9월 ISM 비제조업지수는 전월 48.4보다 소폭 개선된 50.0이 예상되고 있음. 앞서 지난 1일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는 52.6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0을 넘어섰음. 그러나 전월의 52.9보다 낮아진 점 때문에 느린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낳았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난 2일 발표된 9월 고용보고서로 인해 더욱 고조됐음.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 1983년 이후 2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따라서 오는 8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에 더욱 관심이 모아짐.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주(3일 마감 기준) 54만명을 기록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이는 전주의 55만1000건보다 줄어든 것임.
알코아 시작으로 어닝 시즌 돌입	기업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4.8%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9개 분기 연속 실적 악화 추세가 지속되는 것. 매출액은 11.4%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됨.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어닝시즌의 첫 테이프는 알코아가 오는 7일 끊음. 알코아의 실적은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함. 알코아는 3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됨. 팩트셋리서치에 따르면 알코아는 지난 분기에 매출액 43억 달러, 주당순손실 30센트가 예상되고 있음. 올 들어 알루미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알코아의 실적도 타격을 입었음.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72% 빠진 상태임.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70달러 밑으로..고용지표 영향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을 다시 하회했음. 부진한 고용지표로 수요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음. 2일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87센트(1.2%) 하락한 69.95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이날 발표된 9월 고용지표는 부진. 실업률이 26년래 최고치인 9.8%로 상승했고, 9월 비농업부문의 고용감소 규모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음. 이에 따라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라도 빠른 회복세가 어려울 것이고, 이는 원유수요 회복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작용했음.
中 총리, 北 방문..김정일 직접 환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방문하기 위해 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김정일 위원장은 직접 공항에 나와 원자바오 총리를 환대했음.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은 북한과 중국간의 수교 60주년 행사 일환으로 원자바오 총리는 김 위원장의 초대로 사흘간 평양에 머물 예정임. 이번 방문에는 양제츠 외교부장관, 왕자루이 공산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장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천더밍 상무부장, 차이우 문화부 장관, 셰푸잔 국무원 연구소 이사, 추샤오슝 총리실 국장,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차관, 류전치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국장 등이 수행함. 한편,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 등이 주목받고 있음. 일단 이번 사흘간의 일정은 평양의 핵무기 관련 등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양국간에 호의를 베풀기 위한 차원으로 비춰지고 있음.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긴장완화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중국이 고위 방문자들을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하나금융, 1조원 이상 유상증자 검토	하나금융지주가 은행권 인수합병에 대비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음.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4일 "그룹의 성장 등 전략적 측면에서 M&A를 추진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고민하고 있다"며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위해 일부 IB와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음. 증자 규모는 1조원 이상에서 최대 2조여원 까지도 거론됨. 하나금융은 오는 23일 분기 결산 등을 위한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음. 그러나 유상증자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M&A의)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유상증자를 해두면 낭비 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